

사원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창립 90주년 기업PR 광고



3월 19일, 메리츠화재 창립 90주년 기념 TV광고 시리즈 첫 번째 촬영이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광고는 '대한민국 1호 보험회사'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90년 동안

함께 해 온 메리츠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하겠다는 포부와 비전을 담았다.

이번 광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명배우 중 한 사람인 한석규를 주인공으로 기용했다. 한석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 역을 맡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배우 한석규가 한옥 뒷마루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 온 메리츠화재의 90년을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내용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공중파TV에 방영되었으며 현재 두 번째 시리즈가 방영 중이다.

'무배당 메리츠 The건강한보험 1205' 출시



메리츠화재는 가족의 건강을 더 넓고 깊게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무배당 메리츠 The건강한보험 1205」를 출시했다. The건강한보험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의 3대질환과 더불어 간질환, 폐질환까지 한국인의 주요 5대 질병을 집중 보장해 준다. 또한 기존 이차암진단비 보장은 일차암 발병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The건강한보험에서는 일차암 발

병 후에 이차암진단비 보장을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The건강한보험은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 확대된 보장을 제공한다. 기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한정되어 있던 2대 질병에 대한 보장범위를 넓혀 보장의 사각지대였던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금리확정형인 1종과 금리연동형인 2종으로 운영되며, 주요보장에 대해 갱신형, 평준형 병행운영을 통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혀 주어 고객 Needs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한화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6월 14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수상자와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연도대상 시상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원지역단 명목 설계사(FP)가 3년 연속

'보험왕' 자리에 올랐다.

올해로 보험영업 21년째를 맞이하는 문명옥 FP는 작년 한 해 매월 800만원 안팎의 장기보험 신계약 실적을 꾸준히 달성하면서 연간 약 3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렸다. 13차월까지의 신계약 유지율은 97.8%에 달해 완전판매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본인이 모집한 계약의 직전 1년간 장기보험 손해율은 53.8%를 기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한 강북지역단 김진 FP가 신인상 부문에서, 인천지역단 김민옥 FP가 리크루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80여 명의 설계사와 영업 관리자가 각 부문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똑소리나는 자녀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똑소리나는 자녀보험'을 출시하고 6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 상품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를 기본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비 △

부정교합, 크라운,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치료비용 △성(性)소속증 진단비와 희귀난치성 질환 입원 및 수술비 △학원폭력 발생금 △가장 부재 시 교육자금 등을 선택계약 형태로 보장한다.

자녀의 보험 연령 6세 이후 영구치를 상실하거나 치아보존 치료를 받은 경우, 틀니 브리지 임플란트 등 치아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부정교합 치료를 받은 경우 각 담보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성소속증 진단비 및 희귀난치성질환 입원비는 이번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된 담보들이다.

이 밖에도 학원폭력발생금, 유괴납치발생금 등 담보를 통해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신생아보장, 선천이상수술비(허유착증 제외) 등 태아관련 보장과 모성사망, 임신 및 출산질환 입원비 및 수술비 등 모성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

NEWS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이봉철 대표이사 취임



롯데손해보험은 6월 14일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본사 21층 강당에서 신임 이봉철 대표이사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봉철 대표이사는 1986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이후 대흥기획 재무팀과 롯데 정책본부 재무팀 상무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 2월부터 롯데손해보험 중장기 발전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대표적인 재무전문가다.

이봉철 대표는 이날 취임식에서 '국내외 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취임하게 되어 많은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롯데손해보험이 전통있는 보험사로서 보험업계에 우뚝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혼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각오를 다졌다.

'롯데 나눔의 행복 자녀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태아에서부터 자녀의 일상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및 어린이 치아건강을 종합 보장하고, 보험료의 1%를 유니세프에 자동으로 기부하는 '롯데 나눔의 행복 자녀보험'을 출시했다.

'롯데 나눔의 행복 자녀보험'은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렴 천식 등 12대 다발성 질환 입원비와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를 담보하며, 특히 아토피피부염, 중이염, 축농증 등 면역력 저하로 걸리기 쉬운 대표적인 환경성 생활 질환들을 집중 보장해주어 해당 질환으로 입원 시(3일 초과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쌍둥이 플랜>을 통해 쌍둥이 각각의 보험가입으로 입원 첫날부터 일당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로 늘어나고 있는 쌍둥이 출산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롯데 나눔의 행복 자녀보험'은 유니세프와의 제휴를 통해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료의 1%를 1년간 계약자의 명의로 유니세프에 기부함으로써, 한번의 보험가입으로 위험 보장과, 나눔의 실천, 기부금 공제 등의 1석 3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NH농협손해보험은 5월 25일, 경기도 강화군 고천리 연촌마을에서 이윤재 이장을 비롯한 지역단체 관계자 및 마을 주민 10여명과 농협손해보험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

과 연촌마을 간의 '1사 1촌 자매결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식은 도농상생(都農相生)의 틀 형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은 연촌마을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 구입 및 농번기 일손 돕기, 임직원 가족의 농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희 이장 오후에 김학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농협손해보험 임직원 30여명은 연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구마순을 심으며 구슬땀 속에 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김학현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번 자매결연을 통해 연촌마을과 NH농협손해보험이 상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활동을 실천한다면 도농상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참다래' 재해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은 6월 1일부터 콩과 참다래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출시했다. '공' 품목은 전국에서, '참다래' 품목은 전남, 경남, 제주, 광주, 부산, 울산의 6개 시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며, 가입기간은 '공'은 7월 20일까지, '참다래'는 6월 29일까지다.

가입조건으로 '공' 품목은 콩을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참다래' 품목은 1,000㎡이상,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단, '공' 품목의 경우 제주도에서는 면적이 6,500㎡를 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지급 보험금으로는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으며 '공' 품목의 경우 70%이상이 고사했을 때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 '참다래'의 경우 '나무손해보장보험금' 등이 별도로 있다.



제5회 흥국금융가족의 날 행사 개최 임직원들간 축하와 격려의 자리



흥국화재는 '흥국금융가족의 날' 행사를 5월 25일 서울 신문로 본사빌딩에서 개최했다.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투신,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6개 계열사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 임직원 총 개인 17명, 단체 1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흥국화재 김용권 대표는 축사를 통해 "흥국금융가족은 모두 매년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더 큰 발전을 위해 흥국금융가족 계열사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국금융가족의 날 행사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취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삼성화재는 5월 25일 금융권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50001'은 기업의 에너지 절감 계획, 실행, 운영 등에 관한 에너지경영 국제표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1년 6월 발효됐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구미공장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현대건설이 취득한 바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에너지 경영 목표에 따라 에너지 절약, 비용 절감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전사적인 관리시스템이다. 삼성화재는 최고 경영자의 에너지 경영 의지 표명과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환경·에너지경영 방침도 제정한다. 또한 에너지 목표 감축량을 매년 3%로 설정해 전 사옥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표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교차로의 '꼬리물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만 연간 145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월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을지로2가와 논현역사거리 교차로 두 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해 얻은 결과이다.

하루에 1시간 꼬리물기를 할 경우, 통행 시간과 유류비, 환경오염 등 손실 비용이 교차로 한 개당 약 3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교차로 131개소에서 상습 꼬리물기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액은 14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반면 꼬리물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과 교통량이 10.5%, 평균 통행속도는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지체도는 20.1%,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7%, 연료소모는 8.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꼬리물기는 교통 무질서를 유발하는 운전 형태로 교통체증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운전 스트레스로 이어져 교차로 사고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 현대해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체결



현대해상은 5월 24일 서태창 대표이사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중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본사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인 '아주 사소한 고백' 협약식을 진행했다.

'아주 사소한 고백'은 청소년들이 엽서,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고민과 이야기를 꺼내어 보이도록 하는 캠페인 활동으로, 미국의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인 'Post Secret 프로젝트'에서 착안한 것이다. '아주 사소한 고백'은 연 4회 개최되는 카운슬링 콘서트를 비롯해 라디오 공개방송, 고백사연 도서발간, 고백엽서 전시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해상-세종문화회관 고객만족경영 교류 협약식



6월 7일 현대해상은 세종문화회관과 고객만족경영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고객만족경영 교류 협약은 고객만족 우수기업이 상대적으로 고객만족경영에

취약한 공공기관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CS리더스클럽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대해상은 2008년과 2009년 대구광역시, 2010년 서울메트로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세종문화회관과 고객만족경영 교류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현대해상은 앞으로 1년간 세종문화회관에 전직원 CS마인드 교육을 비롯해 CS리더 교육, 고객만족경영 자문, 관련 벤치마킹 등 CS기법을 전수하게 된다.

LIG 손해보험

'2012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선정



LIG손해보험이 정부가 시행하고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사업자로 선정되어,

4월 30일 역삼동 소재 LIG손해보험 본사 대회의실에서 LIG손해보험 김병헌 영업총괄 사장과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풍수해보험 사업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2006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받는다. 사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3만~15만원)을 내고 피해 금액의 90%, 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34만 2,444명으로, 올해 정부는 주택보상금과 침수보상금을 높이고 보험요율을 인하하는 등 풍수재보험 판매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척추측만증재단에 기부금 2억원 전달



LIG손해보험은 5월 24일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척추측만증재단과 척추측만아동 의료비 지원 및 무료 검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LIG손해보험 장남식 사장과 한국척추측만증재단 천은미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서승우 척추측만증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LIG손해보험과 한국척추측만증재단은 국내 척추측만증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후원을 약속했다. 희귀 난치질환인 고도척추측만증 환이를 수년째 지원해 온 LIG손해보험은 이날 협약을 통해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주요 장애 아동 시설에 대한 무상 검진과 예방 교육 활동을 전개, 척추측만증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한국척추측만증재단에 2억여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협약식 직후에는 고대구로병원에서 5월 2일 고도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을 받은 박상진(남, 16세) 군을 문병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박 군은 뇌성마비로 인한 척추측만증으로 허리가 80도 가까이 휘었다가 LIG희망나눔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게 됐다.

동부화재

동부화재 김정남사장 남녀고용평등 유공자로 선정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은 4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2 남녀고용평등'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로 선정돼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 신갈연구소에서 열린 이번 행

사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남녀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은 지속적인 여성인력 채용과 능력개발, 그리고 소통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상호소통을 주요 경영원칙의 하나로 선정하고, 'CEO와 통통통(通通通)', '다이나믹 리더 컨퍼런스' 등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사내의 교육기회 확대, 승진율 제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창립50주년 맞아 글로벌 사랑 나눔 실천 연도상 시상식 개최



동부화재는 4월 13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김정남 사장과 550여명의 PA들이 현지 사무소가 있는 베트남 하노이의 Grand Plaza Hotel에서 글로벌 사랑 나눔을 실천하

는 2012 연도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과 연도상 수상자 50여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 시상식 직후 하노이 외곽의 고아원을 방문해 '동부드림 스쿨(Dongbu Dream School)' 1호 개관식을 갖고 550여명의 설계사와 대리점대표가 각자 준비한 500여종의 기부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부천사업단 부천지점의 박금란씨와 포항사업단 포항남부대리점 신명희씨가 설계사 부문과 대리점 부문에서 각각 영예의 판매왕에 올라 연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화재예방교육 실시

KFPA는 2012년 5월 11일부터 2013년 3월 29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769명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예방교육은 KFPA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발생을 저감은 물론 화재안전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 시키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력으로 긴급대피가 곤란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거동이 불편한 계층이 대부분 생활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종사자들에게 대한 전문적인 화재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이에 KFPA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화재 시 피난 및 대처요령, 소방설비, 소화기 사용법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KFPA의 전문강사들이 교육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KFPA는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전국의 아파트 주민, 직장인, 장애인, 노약자, 군인, 초·중·고·대학생 등 화재예방교육을 원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 원하는 시간에 해당 장소를 직접 찾아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평균 서울자치구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근 4년 평균 특수건물 화재발생률이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 중점지역으로 정하고 화재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11년 기초자치단체 중 화재발생 건수가 전국 1위이며 최근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재발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도 중점지역에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KFPA 창립 39주년 기념식 개최



KFPA는 올해로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5월 15일(화) 오전 9시 KFPA 1층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KFPA는 위험관리 전문기관 기반 구축과 화재안전 문화의 효과적 확산이라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자고 다짐하였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교육과 평가를 통한 안전점검 역량 강화, ▲화재안전관리에 우수한 건물에 인정서와 인정패를 부착하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 정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줄이기 위한 화재예방교육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 봉사활동의 지속적 전개, ▲방화로 인한 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화재원인조사 서비스를 더욱 철저히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현재 KFPA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TFT를 통해, 향후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분야에도 전문 위험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벤치마킹 위해 내한



5월 29일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 의장 및 자문단 일행 16명이 KFPA를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는 아시아 선진국가에 소재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소방 설비 및 관리실태를 견학하고, 자카르타에 건설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안전관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KFPA가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한 화재예방교육, 화재안전에 우수한 건물에게 인정패와 인정서를 수여하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 화재원인조사업무, 시험연구 등 KFPA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초고층 관련 기술 및 기준에 대한 정보도 요청하였다.

KFPA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 외에도 지난 2011년 4월 국제방화연맹 임원단이 KFPA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및 KFPA의 화재안전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KFPA가 세계적인 방재기관이 되도록 세계 유수 기관들과 협력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건축심의위원회는 KFPA 외에도 여의도에 소재한 국제금융센터(IFC)와 63빌딩 등을 방문한 후 5월 31일에 귀국하였다.

방재시험연구원, 중소기업청 컨설팅기관으로 지정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컨설팅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6월 19일(화)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증신청, 제품시험 및 수정·보완, 공장심사 준비 및 지도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방재시험연구원이 지정받은 전문분야는 영국 로이드 선급(LR), 프랑스 선급(BV), 독일선급(GL) 등 해외선급기관 인증과 미국해안경비대(USCG) 형식승인, TUV Rheinland 인증 등이며, 방재시험연구원을 통해 이들 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중소기업은 1건당 최대 43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선박은 출항한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선박관련 자재 등에 관한 화재안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기관 지정을 통해 그간 방재시험연구원이 축적해온 해외인증마크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기술력 등을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